대기업, 녹색분야 3년간 22조 투자

녹색성장위 보고대회… 그린카 5조 3000억 등

국내 30대 대기업이 내년부터 3년간 22조4000억원을 투자해 녹색성장 사업 육성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와 지식경제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대 대기업의 녹색분야 투자 총액 22조4000억원은 지난 3년간 총액 15조1000억원 대비 48.2% 증가한 규모다.

투자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8조9000억원, 그린카에 5조3000억원,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에 4조3000억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그린카 분야 투자는 지난 3년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다.

녹색위는 오는 2020년에는 녹색산업이 현재의 세계 건설시장 규모(2조5000억원)를 넘어서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들은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 전문인력 양성 ▲녹색특화 금융시스템 도입 ▲녹색기술 연구 지원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태양광 전문기업 S-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선도업체인 서울반도체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 차원의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과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친환경 제품 생산 中企 1000개 육성

정부 2013년까지 … 유망녹색기술 200개 과제 선정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

또 태양광·LED 등 유망녹색기술 200개 과제를 선정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친환경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 부품과 소재 사업 등을 담당할 중소기업이 1000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친환경 분야에 전용될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녹색 및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의 규모도 작년 10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추진할 만한 유망 녹색기술 200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 녹색기술은 태양광과 LED(발광다이오드) 등 9대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단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부품 · 소재 사업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코트라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와 해외무역관 녹색수출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수주 활동을 돕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업계 하도급법 위반 급증

올들어 광주·전남북 131건 … 작년동기비 35% ↑

올들어 건설업계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처리한 공정거래 위반 사건은 모두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건)보다 12.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66.2%(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 16.2%(32건), 공정거래법 위반 11.6%(2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양건설·금광기업 등 중견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올 상반기 하도급 위반 131건 가운데 80% 가량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위반 사건 198건 가운데 54건을 경고하고 5건은 시정명령, 14건은 분쟁 조정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4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전남지역 업체인 J건설·N건설은 법정 하도급 대금지급기일(60일)을 어겼으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서남권 업체 하계휴가 평균 3.8일

목포상의 100곳 조사 … 휴가비 30만8천원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8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30만80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평균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보다 다소 늘어난 3.8일, 휴가비 지급 예정 기업은 62.1%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휴가 일수는 3일이 46.8%로 가장 많았고 4일 22.6%, 5일 17.7%로 조사됐다.

하계휴가 일정 확정 기업 중 휴가비 지급예정인 기업은 62.1%로 지난해(43.1%)보다 19%포인트 증가했고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작년보다 19.4% 증가한 30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가비 규모와 지급 업체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비해 전반적으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의 경영환경이 다소 나아진 데 따른 것으로 목포상의는 분석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금호타이어 친환경 경영 박차

트럭용 등 7개 제품 환경마크 추가 인증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종호)가 타이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며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3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승용차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7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지난 99년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의 환경마크 인증을 시작으로 국내 타이어업계 최다인 총 17개 제품의 국내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새로 인증받은 친환경제품은 승용차용 에코윙 시리즈 KH30 〈사진〉 4개 제품과 트럭·버스용 KRA33, KRA11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마모도, 회전저항 및 중량 등 각각 항목의 심사를 거쳐 주행시 연비 향상 및 자원 절약 효과 등을 인정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화 국제특허분쟁 승소

고무산화방지제, 美 플렉시스社와 6년 논쟁 종지부

금호석유화학은 13일 미국 최대 고무화학 약품 기업인 플렉시스아메리카엘피사(이하 플렉시스)가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고무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달 6일 오하이오 연방법원에서 금호석유화학이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플렉시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에 2차례 냈던 소송을 포함, 6년간 이어진 특허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로 특허권 소송 때문에 미국 진출이 제약됐던 정밀화학 사업부문의 주력제품인 고무 산화방지제 '6PPD'(파라페닐렌디아민)의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6PPD는 타이어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약품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생산규모면에서 연간 7만t으로 세계 최대다.

/연합뉴스

기아차 대학생 등 대상 '디지털 마케팅 공모전'

기아자동차는 13일 대학(원)생 및 만 28세 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1회 기아차 디지털 마케팅 공모전인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앱) 아이디어 공모전-앱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랜드 앱'이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고객과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말한다.

공모전은 참가자가 기아차 관련 자유 주제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식이며,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안서를 펀키아 홈페이지(www.funkia.kr)에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 3팀에는 장학금과 해외 연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아차는 체험형 블로그인 펀키아의 트위터 계정(@fun-kia) 개설을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매일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가수 휘성의 콘서트 초대권을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시감위 고위 관계자는 "신빙성이 높은 제보자의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증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감위는 2008년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등급별 포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35.08 (+1.03)
▲ 코스닥지수	497.79 (+1.09)
금리 (국고채 3년)	3.96%
▲ 원·달러 환율	1,212.50원 (+10.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